

2010년 12월 20일 보낸 편지입니다.(1,112조회)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거야'
とりあえずやってみることだ

모든 여행은 즐겁다.
全ての旅行は楽しい

그래, 여행은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거야.
そう。旅行はとりあえずやってみることだ

'살까 말까 망설이는 물건이 있으면'
'買うかどうか迷う物があれば

사지 말아야 하고, 갈까 말까 망설이는
買ってはいけなくて、行くかどうか迷う

여행이 있으면 가야 한다' 라는 말은
旅行があれば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という

언제나 명언이다.
いつも名言だ

- 박혜란의《다시, 나이듦에 대하여》중에서 -
- パク・ヒョランの<もう一度、年齢のために>より -

* 저도 일단 저지르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 私も一応やってみる人の一人です

아픈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책을 사는 일,
傷ついた人の涙をぬぐってあげること、本を買うこと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일, 망설임 없이
いい人々と共に旅行に旅立つこと、迷うことなく

저질러 온 이런 좋은 일들이 저의 삶을 더욱
やってきたこのようないいことが、私の人生をさらに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豊かに、意味有るようにしてくれました

일단 저질러야 회한도 없습니다.
一応やってみると後悔もありません

저지르다
[타동사·르 불규칙 활용] (過ちを)犯す;(悪事·失敗などを)仕出かす;やらかす。
망설-이다
[자동사] ためらう;躊躇する;もじもじする;決心がつかない。
だいのお気に入り → だいの
무척 마음에 듭
저지르다
[타동사·르 불규칙 활용] (過ちを)犯す;(悪事·失敗などを)仕出かす;やらかす。
회;한 [悔恨]
[명사·하다형 타동사] 悔恨;過ちを後悔し残念に思うこと。

2010년 12월 21일 보낸 편지입니다.(1,177조회)

선순환, 악순환
善循環、悪循環

“뱀이 개구리를 씹으며
”蛇がかえるをかんで

‘나를 대적할 자가 그 누구냐’고 생각했지만,
’私に立ち並ぶものは、だれだ’と思ったが

지네가 자기 몸에 붙은 줄을 몰랐다.
ムカデが自分の体を刺したことが分からなかった

뱀이 죽은 다음에 지네가 교만하여
蛇が死んだ後に、ムカデが傲慢にも

거미가 그 몸에 젖 담는 줄 몰랐다.
クモがその体に塩を盛るとは分からなかった

독한 놈은 반드시 독한 것에 상하고,
毒を放つものは、必ず毒で傷つき

너한테서 나온 것은 다시
あなたから出たことは、また

너한테로 돌아가는 법이다.”
あなたに戻ってくるものだ”

- 전택원의《마음에 이슬 하나》중에서 -
- チョン・テウクォンの〈心に露ひとつ〉より -

* 해월(海月) 최시형의 말을 재인용한 것입니다.
* 海月チエ・シヒョンの言葉を再引用したのです

세상사 만물의 법칙에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世の中の万物の方式に2つの大きな流れがあります

하나는 선순환이고 다른 하나는 악순환입니다.
ひとつは善循環で、もうひとつが悪循環です

잘못 뿌려진 씨앗 하나가 엄청난 재앙의
まちがって植えた種ひとつがとてつもない災いの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始まりになることもあります。それゆえ

악순환은 얼른 선순환으로
悪循環はすぐに善循環に

둘러 놀아야 합니다.
変えてお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씹다

<1> [타동사] かむ;咀嚼する。

<2> [타동사] そしる;陰口をきく;人をあしざまに言う。

대:적 [大敵]

[명사] 大敵。

<1> [명사] 大勢の敵。

지네

[명사] 『동물』ムカデ(節足動物多足類の総称)。

교만 [驕慢]

[명사·하다형 형용사]<스럽다형 형용사> 驕慢;おごり高ぶって人をあなどる。

거미

[명사] 『동물』クモ(クモ目に属する節足動物の総称)。

젓

[명사] 塩辛。

재앙 [災殃]

[명사] 災殃;災難;わざわい。

2010년 12월 22일 보낸 편지입니다.(4,939조회)

행복한 순간은 앞에 있다
幸せの瞬間は前にある

행복의 순간을
幸せの瞬間を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고
ちゃんと捕まえることができずに

탄식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ため息をついて、何の足しになるだろうか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時間がいくら残ってるか分からないが

행복한 순간은 앞에 남아 있다.
幸せの瞬間は前に残っている

- 되르테 쉬퍼의《내 생의 마지막 저녁 식사》중에서 -
- ドールト・シッパーの〈私の人生最後の食事〉より

* 지나간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 過ぎ去ったことは幸せではありません

지금 서 있는 자리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今たっている場所のまさに前で待っていることが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幸せです。だから私たちは希望と期待をもって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今日を熱心に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

오늘을 잘 살면 행복은
今日をちゃんと生きれば幸せは

뒤따라 옵니다.
ついてきます

제대로

<1> [부사] 完全に整っているさま;ちゃんと;きちんと;立派に;よく。

<2> [부사] 思うままに;好都合に;うまく;十分に。

포,착 [捕捉]

[명사·하다형 타동사] 捕捉。

<1> [명사·하다형 타동사] つかまえること;とらえること。

탄,식 [歎息·嘆息]

[명사·하다형 자·타동사] 嘆息;嘆いてためいきをつくこと。

소,용 [所用]

[명사] 所用;(何かに)用いられること;入用;入り用;必要;使いみち。

되르테 쉬퍼
Dorte Schipper

2010년 12월 23일 보낸 편지입니다.(1,982조회)

나이 드니까
歳をとるから

나이 드니까, 글썄,
歳をとるから、なんというか

혓바닥도 같이 늙어 가는지 음식 맛을 잘 모르겠어.
舌も同じようにおいていくのか、食べ物の味がよく分からない

내 땀에는 최대한 싱겁게 끓였는데 애들은 너무
私なりに一番甘く煮たのに子供たちはとても

짜다고 난리야. 콩나물도 맛없다, 김치도 맛없다,
しょっぱいと騒いだ。豆もやしもまずい。キムチもまずい。

엄마 솜씨가 왜 이렇게 형편 없어졌냐고 타박들이야.
かあさんの腕が何故こんな有様になくなったとけちをつける

남편은 아무 소리도 않는데 말이야.
夫は何も言わないのに

그러고 보니 그 양반도 맛있어서
ふと考えてみると、夫もおいしいと

아무 소리 안 한 게 아니라
なにも言わないのではなく

맛을 못느껴서 그랬나 봐.
味を感じることができなくて、そうだったのかもしれない

- 박혜란의《다시, 나이듦에 대하여》중에서 -
- パク・ヘランの<もう一度年齢のようにしよう> -

* 인생의 겨울이 왔다고
* 人生の冬が来たと

너무 낙심하거나 서러워할 것 없습니다.
とても落胆して、悲しく思うことはありません

나무도 때가 되면 꽃도 지고 잎도 떨어집니다.
あまりに時がたてば、花も落ちて、葉も落ちます

자연의 이치, 세상의 이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自然の理知、世界の理知を謙虚に受け入れること

주름은 많아져도 아름답게 나이들어 가는 것,
しわが多くなっても、美しく歳をとっていくこと

함께 나이들어 가는 사람의 얼굴을 보며
ともに歳をとっていく人の顔を見て

웃음 잃지 않고 기운 넘치게 사는 것,
笑いを忘れず、機運あふれるように生きること

나이들어 맛있게 사는 길입니다.
歳をとっておいしく生きる道です

혓-바닥

<1> [명사] 舌の上部表面;舌の平。

<2> [명사] ‘혀’의俗っぽい語。

딴:2

[의존명사] 人称代名詞の後に用いられて;なり;考え。

싱겁다

<1> {형용사·ㄹ 불규칙 활용} 水っぽい;淡い;塩辛くない;甘い。

<2> {형용사·ㄹ 불규칙 활용} (酒などが)強くない;味がうすい;水っぽい;気が抜けている。

끓다

<1> [자동사] (水などが)沸く;沸き返る。

<2> [자동사] (温度·体温が)熱くなる。

짜다2

<1> [형용사] 塩氣が強い;塩辛い;しょっぱい。

<2> [형용사] けちだ;けちくさい;しょっぱい。

형편 [形便]

<1> [명사] 事の成り行く有様や結果。

<2> [명사] 暮らしむき;形勢;情勢。

타:박

[명사·하다형 타동사] 責めつけること;ひどくけなすこと;けちをつけること。

우리 그 양반 → 양:반

わたしの夫。

서:러워-하다

{타동사·여 불규칙 활용} 悲しむ;悲しく思う。

겸허 [謙虛]

[명사]<하다형 형용사> 謙虛;相手を重んじ控えめなさま;つつましくて素直なさま。

주름

<1> [명사] (顔などの)皺。

<2> [명사] (衣服の)ひだ;折り目。

2010년 12월 24일 보낸 편지입니다.(1,297조회)

숲속의 아기
森の中の赤ちゃん

나는 겨울에
私は冬に

여름을 아쉬워하지 않는다.
夏を惜しまない

셰익스피어가 잘 말했다.
シェークスピアが言った

'5월의 새로운 환희 속에서 눈을 그리지 않듯,
'5月に新しい歡喜の中で雪を描かないように

크리스마스에 장미를 갈망하지 않는다.'
クリスマスに、バラを渴望しない'

바로 그렇다. 모든 것에 제철이 있는 법.
まさにそうだ。全てのことに時節がある

내 손녀는 두 살에 맞은 크리스마스 때
私の孫娘は2歳で迎えたクリスマスのとき

아기 예수의 구유를 처음 보고는 몇 년 후에도
赤ん坊のイエスの桶を始めてみてから、数年後にも

'숲속의 아기' 이야기를 했다.
'森の中の赤ちゃん'の話をした

- 타샤 튜더의《행복한 사람, 타샤 튜더》중에서 -
- ターシャ・チューダーの<幸せな人ターシャ・チューダー>より -

* 그렇습니다.
* そうです

모든 일에 제철이 있습니다.
全てのことに時節があります

여름에는 장미가 피고, 겨울에는 눈꽃이 핍니다.
夏にはバラが咲き、冬には雪の花が咲きます

좋은 기억도 어린 시절에 만들어져야 오래 갑니다.
すばらしい記憶も、幼かった時節に作られてこそ、長く残ります

어린 시절에 맞은 크리스마스 기억이 무궁한 이야기를
幼かった時節に迎えたクリスマスの記憶が無窮の話を

만들어 줍니다. 누울 자리가 없어 구유에 누우신
作ってくれます。横たわるところが無く置けに横たわられる

'숲속의 아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끝없는
'森の中の赤ちゃん'がたくさんの人に果てしない

사랑 이야기, 행복 이야기로
愛の話、幸せの話で

이어지고 있습니다.
つなげさせていただきます

아쉽다

<1> {형용사·ㄹ 불규칙 활용} (必要な物がなくて·足りなくて)欲しい;不便だ;不自由だ。

<2> {형용사·ㄹ 불규칙 활용} 不満だ;もの足りない;惜しい。

구유

[명사] 飼い葉桶;まぐさ桶。

무궁 [無窮]

[명사·하다형 형용사] 無窮;無限;極まりのないこと;果てのないこと;永遠。

눕다1

<1> {자동사·ㄹ 불규칙 활용} 横たわる;横になる;伏す;寝る。

<2> {자동사·ㄹ 불규칙 활용} やまいの床につく。

ターシャ・テューダー

2010년 12월 25일 보낸 편지입니다.(347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한정훈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ハン・ジョンフ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가슴이 뛰는 삶
心ときめく人生

사람은 가슴이 뛸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이,
人は心がときめくことができることを作り出すことが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生きていくことにおいて、とても重要なことのひとつだと思う

가슴이 뛰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준비하고,
心をときめかせ、したいことをするための準備をして

이루어 내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삶이
かなえていく過程を通じて自分自身の人生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
どれだけ大切なのかを気づくようになる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삶이
さらに、このような過程を通じて自分自身の人生が

타인이 아닌 본인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他人ではなく、本人自らの意思と努力によって

얼마든지 생각하는 방향대로
いくらでも思う方向のままに

흐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다.
流れることができる確信を植えつけてくれる

- 한정훈의《9일간의 유럽여행》중에서 -
-ハン・ジョンフンの<9日間の欧州旅行>より-

* 고등학교 입학도 어려웠던 제가
* 高校入学も難しかった私が

서른한 살에 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30歳で書いた本にある内容です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 방향대로 흐르게
自分自身の人生を思う方向のままに流れるように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するために必要なことは何でしょうか?

아주 작은 것부터 자신이 원하는 일을 준비하고
とても小さいことから、自分自身望むことを準備して

실천하는 습관. 바로 그 너머에
実践する習慣。まさにその無効に

가슴이 뛰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心がときめく人生が待っています

의지 [意志]

[명사] 意志。

<1> [명사] 目的のはっきりした考え。

너머

[명사] (山・垣などの)向こう;向こうがわ;…越し。